

청년 '쉬었음'의 사각지대 II: 확산의 지속과 노동시장 진입 시점별 불이익

제313호(2026. 2.)의 후속 분석으로, 2026년까지 갱신한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에서 20대 초반의 높은 '쉬었음' 비율이 최근에도 이어지고, 높은 비율이 나타나는 범위는 20대 후반까지 넓어졌음. 이 고비율 영역은 특정 진입집단만의 현상이 아니며, 21~25세 비재학 청년을 학력과 졸업·중퇴 후 경과기간으로 나누어도 모든 집단에서 '쉬었음' 비율이 높아졌음. 학교를 떠난 시점(진입 시점)별로 불이익의 형태는 달랐음. 2020~2021년 진입자는 12개월 내 첫 취업 확률이 모형의 예측수준보다 4.85%p 낮았으나 이후 연차에서 '쉬었음'이 높게 남는다는 증거는 뚜렷하지 않고, 2022~2023년 진입자에게서는 진입 초기 비취업의 초과가 관찰됨. '쉬었음' 비율이 높게 이어지는 확산과 특정 진입집단에 남는 장기 상흔은 서로 다른 결과이며, 정책 대상은 출생세대로 묶기보다 졸업·중퇴 후 경과기간 첫 취업 여부, 비취업 지속기간 등 이행 단계에 따라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01 분석의 필요성 및 분석 자료

제313호가 포착한 확산이 2026년에도 이어지는지, 고비율 영역을 누가 구성하는지, 초기 불이익이 이후에도 남는지를 확인하는 후속 분석 필요

- 후속 분석의 배경: 제313호(정지운, 2026)는 2003~2025년 자료로 청년 '쉬었음'의 연령별 확산과 출생연도를 따라 이어지는 양상을 제시함. 이번 분석은 자료를 2026년까지 확장해 그 흐름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살피고, 높은 비율을 보이는 영역의 구성과 졸업·중퇴 시점별 차이를 분석함

분석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5월 청년층 부가조사 원자료(2003~2026)」

- 연령별 분포: 2003~2026년 15~29세를 대상으로 하되 본문 그림은 18~29세만 표시함
- 진입 코호트 분석: 2015~2026년 비재학 청년 52,167명을 이용함. 최종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연도를 노동시장 진입연도로 보며, 실제 첫 취업연도와는 다른 개념임. 진입자는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그해 학교를 떠난 청년이고, 진입 후 연차는 조사연도에서 진입연도를 뺀 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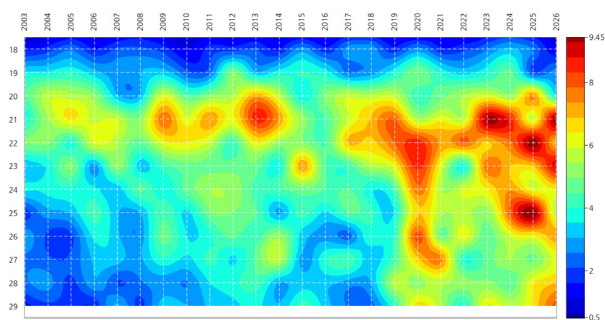
용어: '쉬었음'은 분석자료에서 비경제활동 사유가 '쉬었음'인 경우이며, 비취업은 실업과 비경제활동을 포괄함. 모든 비율은 조사 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진입자-진입집단과 함께 적은 연도(예: 2022년 이후 진입자)는 진입연도이고, 그 밖의 연도(예: 2023~2026년 21~25세)는 조사연도임.

02 2026년까지 갱신한 연령별 '쉬었음'의 분포

20대 초반의 높은 수준이 최근에도 반복되고, 높은 비율이 나타나는 범위는 20대 후반까지 넓어졌음

- 그림의 구성: 그림 1은 연도와 연령을 함께 배치해 '쉬었음' 비율이 높은 구간을 보여 줌. 가로축은 조사연도, 세로축은 아래로 갈수록 연령이 높아짐. 전체 청년 중의 비율(A)과 비재학 비경제활동 청년 내부의 비중(B)을 구분하여 제시함
- 시기별 변화: 2020년을 전후해 높아진 '쉬었음' 비율은 2026년까지의 자료에서도 이어짐. 최근의 20대 초반에서는 높은 비율이 반복해서 관찰되며, 20대 중·후반에서도 높은 구간이 나타남
- 출생집단의 이동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양상: 20대 초반에서 반복되는 높은 구간은 같은 출생집단의 이동만으로 설명할 수 없음. 2020년의 21세와 2026년의 21세는 서로 다른 출생집단이기 때문임. 젊은 연령에서 높은 수준이 되풀이되는 흐름과 더 높은 연령까지 이어지는 흐름이 함께 존재함
- 고비율 영역의 크기: 그림 1(A)에서 최근 붉은 계열이 나타나는 두 범위인 2023~2026년의 21~25세와 2024~2026년의 25~28세를 고비율 영역이라 함. 두 영역의 '쉬었음' 비율은 각각 7.1%, 6.1%로 2015~2019년 같은 연령대의 4.9%, 3.4%보다 높음. 단, 두 연령 구간은 25세가 중복되므로 서로 배타적인 두 집단을 뜻하지 않음

A. 전체 청년 대비 '쉬었음' 비율



B. 비재학 비경제활동 청년 대비 '쉬었음'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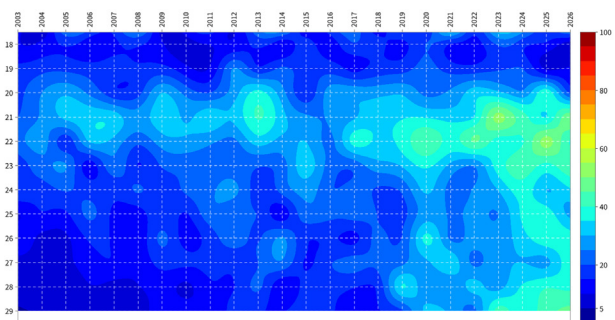


그림 1 | 청년 '쉬었음'의 연령×연도 컨투어(18~29세, 2003~2026년)

주: 2026년 자료를 반영한 TPS 보간(thin plate spline) 그림. 색 눈금은 A가 0.5~9.45%, B가 0~100%임. 보간된 개별 봉우리나 한 연령·연도에 걸친 분포를 해석함. 2003년 경제활동상태 정의 정정을 반영했으며, 분모가 매우 작은 15~17세는 표시하지 않음. B의 27세·29세 비중의 근사 표준오차는 각각 5.8%p, 5.6%p임.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5월 청년층 부가조사 원자료 분석

비재학 비경제활동 청년 내부에서도 20대 후반의 '쉬었음' 비중이 높음

- 비경제활동 내부 비중: 전체 청년 가운데 '쉬었음'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진 것과 함께, 비재학 비경제활동 청년 내부에서도 20대 후반의 '쉬었음' 비중이 높게 나타남. 2026년 단일연령 값은 27세 38.2%, 29세 46.3%임. 해당 연령의 모든 청년 중 약 40%가 쉬다는 뜻이 아니라 학교에 다니지 않는 비경제활동 청년을 분모로 한 비중임
- 두 지표의 구별: 전체 청년 대비 비율이 높다는 것은 해당 연령에서 '쉬었음'이 넓게 나타난다는 뜻이고, 비경제활동 집단 내부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그 집단에서 '쉬었음'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뜻임. 후자의 변화에는 분모의 구성 변화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취업준비를 하던 개인이 곧바로 '쉬었음'으로 이동했다고 해석할 수는 없음

03 높은 비율을 보이는 영역에는 여러 진입집단이 함께 있다

최근 고비율 영역을 졸업·중퇴 시점으로 나누면, 특정 진입집단만의 현상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남

- 분석 대상: 두 고비율 영역의 청년을 졸업·중퇴 연도(진입연도)에 따라 2019년 이전, 2020~2021년, 2022년 이후 진입자로 나눔. 서로 중복되지 않는 연령집단의 비교가 아니라 고비율 영역을 구성하는 집단을 확인하는 분석임
- 21~25세: 2023~2026년 조사의 21~25세 중 2022년 이후 진입자는 영역 인구(재학생 포함)의 30.9%, '쉬었음' 인구의 41.7%를 차지함. 그러나 이 집단의 '쉬었음' 비율 9.5%는 2020~2021년 진입자 10.4%, 2019년 이전 진입자 12.1%보다 낮음. 최근 진입자는 '쉬었음' 인구를 구성하는 큰 집단이지만 집단 내부 비율까지 가장 높은 것은 아님

- 25~28세: 2024~2026년 조사의 25~28세에서도 2022년 이후 진입자의 '쉬었음' 비율은 5.8%로 2019년 이전 진입자의 8.0%보다 낮고, 이 영역 '쉬었음' 인구 중 2019년 이전 진입자가 차지하는 몫은 39.9%임. 20대 후반의 높은 수준을 최근 학교를 떠난 청년만의 상황으로 설명하면 그보다 앞서 학교를 떠난 청년을 간과하게 됨
- 집단 구성의 차이: 같은 나이에 학교를 더 일찍 떠난 집단은 학력과 진입 후 연차가 다름. 같은 연령의 앞선 진입자에는 고졸이 많이 포함되며, 학력을 맞추면 최근 진입자의 '쉬었음' 비율이 더 높은 비교도 나타남. 따라서 진입 시점별 단순 비율의 차이에는 학력과 진입 후 연차의 차이가 함께 반영됨

학력과 진입 후 연차를 나누어도 최근의 상승이 관찰됨

- 연차×학력 비교: 21~25세 비재학 청년을 진입 후 연차와 학력으로 구분하면 여섯 집단 모두 2023~2026년 조사의 '쉬었음' 비율이 2015~2019년 조사보다 높음. 진입 후 0~1년차인 고졸 이하는 7.8%에서 14.3%로, 2년차 이상인 고졸 이하는 8.5%에서 14.8%로 높아졌고, 전문대졸과 대졸 이상에서도 두 연차 구간 모두 상승함(표 1)

표 1 | 21~25세 비재학 청년의 진입 후 연차·학력별 '쉬었음' 비율

(단위: %, %p)

진입 후 연차	학력	2015~2019년 조사	2023~2026년 조사	변화(%p)
0~1년차	고졸 이하	7.8	14.3	+6.5
	전문대졸	5.8	9.9	+4.1
	대졸 이상	4.5	7.7	+3.2
2년차 이상	고졸 이하	8.5	14.8	+6.3
	전문대졸	5.0	7.1	+2.1
	대졸 이상	2.8	5.4	+2.6

주: 조사 가중치를 적용한 비율이며, 두 조사기간의 집단별 수준을 비교한 기술통계임. 변화는 점추정치의 차이이며 통계적 유의성을 뜻하지 않음.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5월 청년층 부가조사 원자료 분석

- 해석: 최근의 상승은 새로 진입한 청년에 국한되지 않음. 다만 여섯 집단이 같은 폭이나 같은 비율로 상승한 것은 아니므로, 모든 상승분을 하나의 코호트 충격으로 묶거나 공통 시기효과의 크기를 이 표만으로 확정할 수는 없음. 여러 연차 집단의 동반 상승과 특정 진입집단의 초기 불이익은 04절의 모형에서 나누어 살펴봄

04 팬데믹 진입자와 최근 진입자의 불이익은 형태가 다르다

조사연도·진입 후 연차·연령·성·학력을 고려한 모형으로 진입 시점별 차이를 비교함

- 분석 방법: 가중 선형확률모형(weighted linear probability model)으로 추정함. 표 2의 계수는 해당 집단의 실제 비율이 아니라 모형이 예측하는 수준에 비해 얼마나 높거나 낮은지를 나타내는 %p 차이임

표 2 | 진입 시점별 주요 결과: 모형의 예측수준 대비 차이

(단위: %p)

진입연도	결과	0~1년차	2~3년차	4~5년차 ¹
2020~2021년	쉬었음	-0.21	-0.48	+1.21
	비취업	-0.87	-1.59	-0.86
	12개월 내 첫 취업	해당 없음	-4.85	+2.02
2022~2023년	쉬었음	+0.54	+1.27	-1.83
	비취업	+4.39	+3.24	+0.02

주: ¹ 2022~2023년 진입집단은 이 구간에서 2022년 진입자의 2026년 조사인 4년차 403명만 관측됨. 12개월 내 첫 취업은 진입 2년차 이상에서 정의함. 표는 점추정치를 제시하며 모든 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뜻하지 않음. -4.85의 HC1 표준오차는 1.51임.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5월 청년층 부가조사 원자료 분석

팬데믹 진입자: 첫 취업의 지연과 지속적 '쉬었음'을 구분함

- 첫 취업의 지연: 2020~2021년 진입자는 진입 2~3년차 표본에서 12개월 내 첫 취업 확률이 4.85%p 낮게 추정됨. 첫 일자리를 얻는 초기 이행의 지연을 보여 주는 결과임
- 지속적 '쉬었음'은 뚜렷하지 않음: '쉬었음' 계수는 0~1년차 -0.21%p, 2~3년차 -0.48%p, 4~5년차 +1.21%p로 일관된 양의 초과가 나타나지 않음. 팬데믹 이전 진입집단을 이용한 위약 비교(placebo)에서도 비슷한 크기의 양·음 계수가 나타남

- 해석의 범위: 첫 취업의 지연이 관찰됐다는 결과와 이후 '쉬었음'이 지속적으로 높았다는 주장은 같지 않음. 4~5년차의 첫 취업 계수가 양수라는 결과도 서로 다른 조사시점의 표본 비교이며, 동일 개인의 초기 지연이 모두 해소되었다는 직접 증거는 아님. 따라서 현재 결과는 지속적인 '쉬었음' 상흔이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범위에서 해석함

2022~2023년 신입자: 초기 비취업의 초과가 관찰됨

- 초기 비취업의 초과: 2022~2023년 신입자의 비취업은 0~1년차 +4.39%p, 2~3년차 +3.24%p 높게 추정됨. '쉬었음'은 같은 구간에서 +0.54%p, +1.27%p임. 4~5년차 비취업 계수(+0.02%p)는 2022년 신입자 403명만의 값이므로 장기 지속이나 회복으로 단정할 수 없음
- 시기와와의 구분: 진입연도와 진입 후 연차를 정하면 조사연도도 정해지므로, 최근 신입자의 초기 비취업 초과는 최근 시기에 저연차 집단이 더 크게 겪은 고용 여건의 악화와 완전히 분리되지 않음

불확실성: HC1 표준오차는 조사구 집락과 연동표본의 연도 간 공분산을 반영하지 못함. 따라서 작은 효과의 부재나 장기 회복을 확정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장기 상흔의 판단에는 추가 관측이 필요함.

05 시사점: 연령별 확산과 이행 단계별 위험을 함께 진단한다

높은 비율이 나타나는 연령과 실제 지원 수요는 구분됨

- 대상 구분: 20대 후반이라는 연령만으로 장기 비취업 상태라고 판단할 수는 없음. 졸업·중퇴 후 경과기간, 첫 취업 여부, 최근 취업경험과 비취업 지속기간은 서로 다른 정보를 제공함

첫 취업 지연과 취업 이후의 이탈은 서로 다른 정책 과제임

- 진단: 팬데믹 진입자의 12개월 내 첫 취업 확률 감소는 초기 이행기간에 관한 결과이고, 최근 진입자의 비취업 초과는 조사시점의 고용상태에 관한 결과임. 첫 일자리까지 걸리는 기간, 첫 취업 이후의 고용유지, 비취업 상태의 지속을 같은 성과지표로 대체하기 어려움
- 지원 단계의 구분: 학교와 고용서비스의 연결·일경험 등 초기 이행 지원과 취업경험 이후의 재진입 지원은 대상으로 삼는 단계와 확인할 성과가 다름
- 검토 방향: 이 분석은 수단의 효과나 우선순위를 추정한 것이 아님. 다만 정책 검토에서는 어떤 이행 단계의 청년에게 도달 하는지, 첫 취업 소요기간과 이후 고용유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장기 비취업자를 실제로 포괄하는지를 각각 확인할 수 있음. 출생세대만으로 대상을 묶으면 같은 세대 내부의 이행 단계별 차이가 드러나지 않음

최근 진입자의 초기 악화가 지속되는지는 아직 판단할 수 없음

- 후속 관측: 2022~2023년 진입자의 초기 비취업 초과는 후속 관측에서 확인할 과제임. 현재 자료에는 2~3년차의 양의 초과와 4년차(403명)의 낮아진 계수가 함께 있어 하나의 회복 경로로 정리하기 어려움. 2027~2028년 자료에서는 2022~2023년 진입자의 더 높은 연차와 그 이후 진입자의 경로를 추가로 볼 수 있음. 다만 반복 횡단면의 관측기간이 늘어난다는 사실만으로 진입 충격의 인과적 상흔이 자동으로 식별되는 것은 아님
- 결과의 범위: 개인별 취업·비취업 이행과 첫 일자리의 질을 함께 확인하면 첫 취업의 지연, 취업 이후의 재이탈, 고용의 질에 남는 불이익을 구분할 수 있음. 현재의 '쉬었음' 지표에서 지속적 초과가 뚜렷하지 않다는 결과를 임금·일자리 질을 포함한 모든 장기 불이익이 없다는 결론으로 확대할 수는 없음

종합하면, 2026년까지의 자료는 청년 '쉬었음'의 확산을 보여 주지만 그 전체를 하나의 세대적 상흔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움. 20대 초반에서 되풀이되는 높은 수준, 20대 후반까지 넓어진 분포, 진입 시점에 따라 다른 초기 불이익이 함께 관찰됨. 연령별 분포와 졸업·중퇴 이후의 이행을 연결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 이번 후속 분석의 결론임.

자료 및 참고문헌

국가데이터처(2026). 경제활동인구조사 5월 청년층 부가조사 원자료(2003~2026년) 및 파일설계서.
정지운(2026). 「청년 '쉬었음'의 사각지대: 세대별 상흔과 연령별 고착화 진단」. KRIVET Issue Brief 제313호.